오륙도 글밭

가을바람에 실려 온 남촌의 들꽃 향기

김종화
남촌문학관장·남구문협 부회장

남구의 옛 이름은 남촌면이다. 못골은 대연리였다. 구한말까지 남촌이었던 것이 1910년 용주면으로 바뀌면서 용호, 용산, 용당, 용소, 용연 등 '용'자가 든 이름이 많아졌다. 옛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필자가 사는 못골는 '생천언' 혹은 '생천향'이었다. 언(堰)이란 큰 방죽이 있었다는 말이니 자연 연못으론 제법 큰 못이었다. 향(鄕)은 시골이란 뜻도 있으니 논밭이 많았을 것이다. 대연5동의 무신아파트 앞길이 못둑이었으니 필자의 집인 남촌문학관은 못둑길의 들머리에 해당된다.

못골 토박이 공기화 수필가(부산교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못이 끝나는 동사무소 앞엔 커다란 수문이 있었다. 남구청 가는 구릉지는 공회당이 있었던 '웃마실', 대연초등학교 쪽 낮은 곳은 '아랫마실'이었다. 사람이 살지 않았던 동천고등학교 앞은 밤톨을 줍던 '밤골', 연포초등학교 쪽은 '고동골', 남구청 쪽은 '등너머'라 불렸다. 토끼몰이 갔던 밤골 안 '여시골'엔 여우, 고라니, 족제비가 살았고 남구도서관 뒷고개 갈래길서 '야호!' 소리치면 못 너머 메아리로 되돌아와 '메아리산'이라 했단다. 석포 곧 '돌포'까지는 배가 드나들었고 그 곁이 '갓골'이다. 용호동과는 큰 내로 가로막혀 내왕이 뜸했고 염전이 있던 분개는 '붕깨'라 불렸고, 산성교회 못미쳐 '반개등'엔 사립소학교가 있어 1학년까지 논둑길로 학교를 다녔단다. 대연초등학교 앞길엔 냇물이 흐르고 코스모스가 피어 고무신 벗어 벌을 잡았다. 용소를 지나 부경대 자리 '갯등' '갯번덕' 드넓은 모랫벌에선 백합조개를 낚았단다.

남구에는 난대성 자생식물과 함께 외래식물 등 여러 곳에서 유입된 식물자원이 많다. 필자는 남구에서만 40여 년을 살면서 문현동과 대연동에서 들꽃정원을 일구고 1000여 종의 자생식물과 야생화를 가꾸며 살아왔다. 이제 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려 한다.

우리 남촌은 옛 거칠산국 자리인 황령산이 있고, 동생말에서 오륙도로 이어지는 산자락이 길어 산야초가 많다. 해안에는 염생식물도 다량 자생하고 있다. 더구나 1978년 양묘장으로 출발하여 2002년 8월부터 학생·가족 단위의 자연 체험이 가능하도록 꾸민 대연수목전시원엔 전국 뿐 아니라 세계의 나무들이 함께 자라고 있어 풍년화, 납매, 순얼대, 훼이조아, 부틀레아 등 외래종과 1000종에 가까운 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동생말의 용담

황령산 자락의 조개나물

이기대 갈맷길의 큰꽃으아리

오륙도해맞이공원의 부산꼬리풀

독자들 중에는 봄나들이 중에 마주친 조개나물과 푸른 현호색 군락에 마음 설레고, 갈맷길 한가운데 커다랗게 피어 올라 반겨주던 큰꽃으아리에 마음을 뺏긴 일이 있을 것이다. 지킴이가 풀로 덮어 지키다가 살짝 보여주는 할미꽃을 보기도 했을 게고, 가을이 깊어가는 날 동생말 벼랑에 피어나던 붉은 산부추와 진보랏빛 용담에 눈을 맞춘 기억도 있을 것이다. 산행 중에 만난 구절초와 미역취 쑥부쟁이 등 들국화, 칫솔처럼 한쪽으로만 몰려 핀 꽃향유 덤불을 신기해했을 것이다.

오륙도 바위틈에 뿌리 내린 장구채를 보며 끈기를 배우고, 대연수목전시원의 노랑꽃수수꽃다리와 노각나무 꽃에 감탄 또 감탄했으리라. 이기대 바윗등을 덮어 자라던 반 뼘 높이의 갯강아지풀과 붉게 피어나던 천굴채 군락이 근래에 사라져 아쉽기는 하지만, 승두말 주변에 핀 껑충한 키의 민들레 닮은 사데풀, 해안 절벽을 뒤덮은 푸르른 해국 군락, 어울마당 주변에 무더기 무더기 피는 쑥부쟁이에 우리 남촌 사람의 안복을 누렸을 것이다.

따뜻한 남촌에는 봄까지풀, 털머위, 광대나물, 방가지똥, 털별꽃아재비, 개쑥갓, 사데풀, 복수초 등 겨울 들꽃이 많다. 봄이면 그야말로 야생화천국이다. 구슬붕이, 양지꽃, 주름잎, 할미꽃, 현호색, 노랑제비꽃, 미나리아재비, 산괴불주머니, 초롱꽃, 조개나물, 큰꽃으아리가 앞다투어 피어나고 여름이 오면 메꽃, 천굴채, 원추리, 계요등, 약모밀, 쥐손이풀, 마타리가 얼굴을 내민다. 가을이면 꽃향유, 구절초, 미역취, 개미취, 쑥부쟁이, 산부추, 해국, 산국, 층꽃나무, 장구채, 산비장이, 용담이 핀다.

동백과 산다화(애기동백)는 말할 것도 없고, 유엔기념공원에 피는 한겨울의 홍매, 백운초등학교의 백매, 겹꽃은 남촌의 자산이다. 최근 증식 복원 된 부산꼬리풀은 '부산'이란 학명이 붙은 세계 유일의 꽃이다. 부산사초 역시 부산이 원산지로 우리가 가꾸고 보존해야 할 국가 자원이다. 한번쯤 남구의 풀꽃마을로 낭만여행을 떠나볼 것을 제안한다.

신선대

대동골문화센터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신청기간 : 2018. 9. 12.(수)~강좌별 정원 마감시 (일요일, 월요일 제외)
○신청방법 : 대동골문화센터 사무실(2층) 방문신청(선착순)
○강좌기간 : 2018. 10. 2.(화)~12. 27.(목)(공휴일 제외)
○강좌내용

구분	강좌명	대상	운영 요일 및 시간	정원	수강료(3개월)	강의실	비고
문화	통기타교실(중급)	성인	화요일 10:00~12:00	15명	60,000원	2층 공연장	악기 지참
	통기타교실(초급)	성인	화요일 12:30~14:30	15명	60,000원		
	즐거운팝송교실	성인	화요일 15:00~17:00	80명	60,000원		신설
	노래교실(전통가요)	성인	수요일 10:00~12:00	80명	30,000원		
	우쿨렐레	성인	목요일 10:00~12:00	15명	60,000원		악기 지참
	오카리나	성인	금요일 09:30~11:30	15명	60,000원		
	플룻	성인	금요일 11:30~13:30	15명	60,000원		
	사군자(기초)	성인	화요일 10:30~12:30	20명	60,000원	3층 제1강의실	
	실용생활영어	성인	수요일 13:00~15:00	25명	60,000원		
	생활사주역학(야간)	성인	수요일 19:00~21:00	20명	60,000원		
	서예(한자)	성인	목요일 13:00~15:00	20명	60,000원		
	생활사주역학	성인	목요일 15:10~17:10	20명	60,000원		
	어린이 역사논술(임진왜란~조선후기)	10세 이상	토요일 10:00~12:00	20명	60,000원		
운동	CORE-요가	성인	화·목요일 09:00~09:50	20명	60,000원	3층 제2강의실	샤워 시설 없음
	줌 바다이어트로빅	성인	화·수·금요일 10:00~10:50	20명	135,000원		
	힐링 요가	성인	화·목요일 11:10~12:00	20명	60,000원		
	CORE-요가(야간)	성인	화·목요일 19:30~20:20	20명	60,000원		신설
	라인댄스	성인	수·금요일 09:00~09:50	20명	60,000원		샤워 시설 없음
	생활요가	성인	수·금요일 11:30~12:20	20명	60,000원		
	필라테스 요가	성인	수·금요일 13:00~13:50	20명	60,000원		
	직장인 요가(야간)	성인	수요일 19:00~21:00	20명	60,000원		
	키크기발레(A반)	6~7세	토요일 10:00~10:50	20명	45,000원		
	키크기발레(B반)	8~10세	토요일 11:00~11:50	20명	45,000원		
	방송댄스(A반)	6~10세	토요일 14:00~14:50	20명	45,000원		
	방송댄스(B반)	11세 이상	토요일 15:00~15:50	20명	45,000원		

▷수강료는 신청접수와 동시에 납부하셔야 하며, 미결제시에는 수강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 결제방법 : 카드, 현금, 계좌이체(신청자명의)
▷수강료 면제자(기초생활수급자)는 접수시 해당서류(수급자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교재비, 재료비, 실습비 등은 수강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이 별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 문화센터에는 샤워시설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운동 강좌 수강생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대동골문화센터(☎607-3380~3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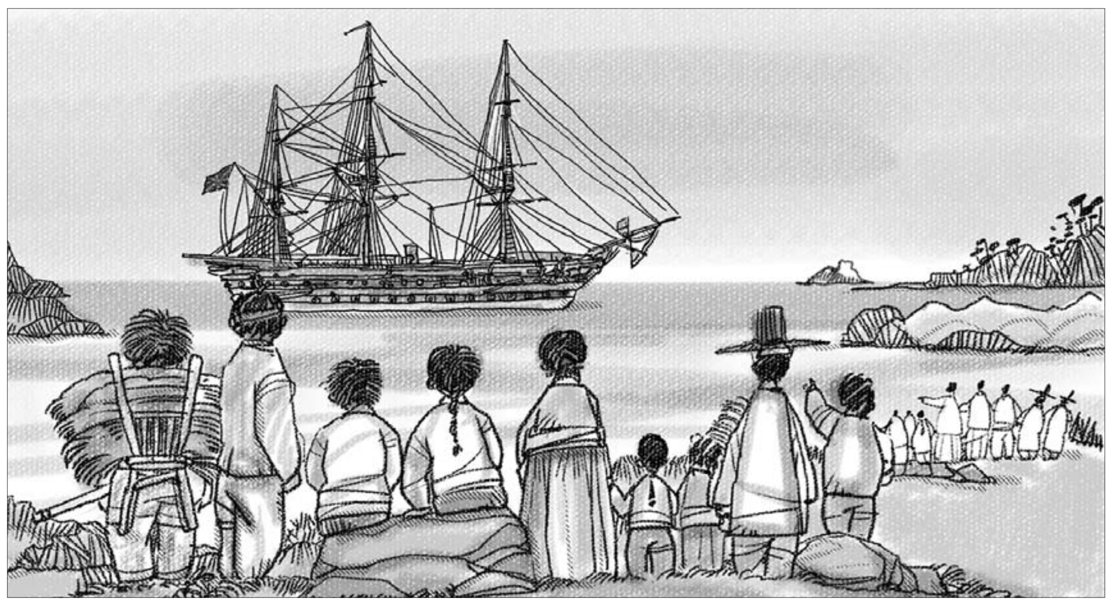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정기분) 부과 안내

○부 과 대 상 : 각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동일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 소유시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 소유지분 면적 160㎡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음)
○부 과 기 간 : 2017. 8. 1.~2018. 7.31.
○납부의무자 : 2018. 7.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납 부 기 간 : 2018.10.16.~10.31.
○납 부 방 법 : 금융기관, 인터넷, 납부전용(가상)계좌, ARS 등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65, 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조선의 근대화, 용당포에서 길을 잃다

서구의 동양 진출(서세동점, 西勢東漸)이 본격화된 18~19세기, 서구 열강의 노크를 받던 일본과 조선은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모든 문호를 열어젖힌 반면 조선은 온 나라에 빗장을 채운 채 눈과 귀를 닫아버렸다.

일본이 근대화의 길을 걷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영어'에 있었다. 1808년 나가사키에 나타난 영국 함선으로 일본은 영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영국과의 접촉 6년 만에 일본은 최초의 영일사전 '안게리아고린타이세이'를 편찬하고 서구의 기술문명과 제도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그에 반해 조선의 첫 영한사전은 일본보다 80년이나 늦은 1890년에야 발간됐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보다 10년이나 앞서 영국 함선과 영어를 만났다. 그것도 남구 앞바다에서 말이다. 이 세기적 만남은 2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1797년 10월 14일(정조21년) 용당 앞바다에 정체불명의 범선 한 척이 나타났다. 마을은 물론이고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동래 관헌이 급히 봉화를 피우고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 조선왕조실록은 당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국의 배 한척이 동래 용당포 앞바다에 표류해 이르렀다. 배 안의 사람들은 모두 코가 높고 눈이 파랗다. 역관을 시켜 국호와 표류해 온 연유를 물었지만 중국어, 만주어, 일본어, 몽고어를 모두 알지 못하였다. 붓을 주어 쓰게 하였더니 모양새가 구름과 산과 같은 그림을 그려 알 수가 없었다'.

이 배는 윌리엄 로버트 브라우턴(1762~1821) 함장이 이끈 87톤급 영국 해군 탐사선이었다. 최근까지 이 함선은 프로비던스호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프로비던스호의 부속선인 프린스 윌리엄 헨리호였다. 모선인 프로비던스호가 해역 탐사 도중 좌초돼 함장 등 선원 35명은 부속선인 헨리호에 옮겨 타 북태평양 탐사를 이어가던 중 식수와 연료가 떨어져 용당포까지 흘러들어 왔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용당포 주민과 관원들은 나룻배를 나눠 타고 낯선 이양선에 올랐다. 조선이 영어를 최초로 대면하는 순간이었다. 브라우턴 함장은 자신의 항해일지에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다.

'마을 주민들은 자기 나라에 왜 왔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안타까웠다'.

함장이 "이곳은 어디인가"라고 묻자 주민 중 한 사람이 국호를 묻는지 알고 "조선"이라 답했다. 이 때문에 용당포는 오랫동안 '초산(chosan)'으로 알려지는 해프닝도 있었다. 호기심 많은 브라우턴은 용당포 주민들과 손짓발짓으로 'Hannah(하나)' 'Mool(물)' 'Sonamo(나무)' 등 우리말 38개 단어를 채집하는 성과를 냈다. 또 선원들은 육지로 올라와 남구 일원의 지형을 탐사하고 이를 그림으로 남겼다. 용당포 주민들도 필요한 물과 땔감을 제공하면서 언어를 초월해 우정을 쌓았다. 8일간 용당포 앞바다에 머문 헨리호는 1997년 10월 21일 용당포를 떠났다.

'코리안 친구 중 한 명이 우리가 출항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나는 그에게 권총과 망원경을 선물로 주었다. 수많은 코리아 친구들은 기쁜 마음으로 근처 산으로 올라가 우리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나무와 물을 공급해 준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이런 사실은 줄곧 역사에 가려졌다가 한국쉘석유 라일리 사장에 의해 1994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라일리 사장은 한국과 영국의 첫 만남을 찾던 중 브라우턴 함장 일행이 정박한 곳이 용당이란 사실을 영국에서 발굴한 지도를 통해 확인했다.

나라의 운명을 바꿀 희대의 만남은 너무도 싱겁게 막을 내렸다. 어느 눈 밝은 위정자가 있었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 일이 있고 백년 뒤 조선은 통째 나라를 일본에 탈취 당해야 했다. 되감을 수 없는 역사의 시계추가 안타깝다. **부산남구신문 편집장**

우리지역 일자리 알림판

<2018. 9. 14.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에이원스틸	대연동	프레스 금형 제조원	1명	18. 9. 13.~채용시	시급 7530원+협의	051-628-7474
가람광고기획	대연동	광고디자이너(간판, 현수막)	1명	18. 9. 13.~채용시	월급 160만원+협의	051-465-8965
임해누리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오륙도요양병원	용호동	간호조무사(3교대)	1명	18. 9. 13.~채용시	월급 158만원	051-647-7007
㈜진성통운	감만동	도로운송사무원	2명	18. 9. 13.~채용시	월급 200만원~220만원	051-633-2633
㈜금성전력	대연동	통신장비 설치 수리원	2명	18. 9. 13.~채용시	월급 250만원 이상	051-907-7891
위대항병원	대연동	병원급식 조리사(2교대 자격증필수)	1명	18. 9. 13.~채용시	월급 160만원	051-928-9000(내선 2)
효메디요양병원	용호동	병원급식 조리사(자격증필수)	1명	18. 9. 11.~채용시	월급 180만원	070-4851-7019
세무사이영근 세무회계사무소	대연동	회계사무원(시간제)	1명	18. 9. 13.~채용시	월급 130만원	010-2271-8277
청해선박(주)	용당동	하역적재종사원(하역포맨 고박포맨)	2명	18. 9. 11.~채용시	연봉 3000만원~3500만원	051-638-1116
피엘아이렌트카(주)	대연동	차량배, 반차직원(자동차대여원)	2명	18. 9. 13~채용시	시급 7530원	010-6864-4404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산따라 물따라

산행을 떠나요

〈2018. 10.〉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대삼산악회	10/14(일)	합천 해인사	010-6252-5641
	약천산악회	10/17(수)	함양 선비둘레길	010-4655-4370
	백호산악회	10/10(수)	충남 금산	010-5621-4007
	연포산악회	10/14(일)	거창 보해산	010-3832-5971
	자유산악회	10/7(일)	지리산 뱀사골	010-5576-8142
용호동	금강산악회	10/7(일)	백아산 하늘다리	010-3865-9051
	용신산악회	10/14(일)	영암 월출산	010-4657-7051
	청산산악회	10/7(일)	연화도 출렁다리	010-8008-2087
	해월산악회	10/21(일)	안동 연점산	010-7154-3166
	산이좋아산악회	10/27(토)	설악산	010-9329-3560
	여남산악회	10/14(일)	충남 계룡산	010-3855-6569
	용사산악회	10/28(일)	전남 월출산	010-2124-9329
	여명산악회	10/7(일)	예산 산막이옛길	010-2582-4254
	청심산악회	10/28(일)	영덕 칠보산	010-2736-7553
	21세기산악회	10/13(토)~14(일)	강원도 특별산행	010-7563-1943
용당동	문화산악회	10/28(일)	순창 강천산	010-3856-7850
	용마산악회	10/14(일)	통영 연화도	010-2692-1170
감만동	녹색산악회	10/28(일)	통영 연화도	010-7342-3426
	오솔길산악회	10/21(일)	장성 입암산	010-8287-1192
우암동	우일산악회	10/7(일)	새만금 선유도	010-3595-5848
문현동	문현2동산악회	10/14(일)	서산 황금산	010-2902-8322
	원뿌리산악회	10/21(일)	함안 여항산	010-4564-7769
	산누리산악회	10/7(일)	주함월산	010-4035-3432
	문사산악회	10/14(일)	괴산 산막이옛길	010-8466-8662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 성 한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품>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